

2017.06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제10차 호스피스 콘서트
(Concert/Cooinda Centre, Baptist Care, 2017.5.8) &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연수교육
(Second annual hospice volunteer training session in Korea 2017.4.25~4.27)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3~6)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so shalt thou dwell in the land, and verily thou shalt be fed. Delight thyself also in the LORD: and he shall give thee the desires of thine heart. Commit thy way un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shall bring it to pass. And he shall bring forth thy righteousness as the light, and thy judgment as the noonday. (Psalm 37:3~6)

월간·148호
Monthly Issue 148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암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1.7

06

C·O·N·T·E·N·T·S

02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후기

06 호스피스(SICA)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2017년 5월 8일 어버이날 월요 출발기 도회를 마치고, Sophia 강사님의 지도로 요가세조를 하였다. 그 후 모든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1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로 출발하였다. "Baptist Care, Coopinda Centre"는 매주 월요일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방문하는 곳이므로 자리에 익숙하다. 특히 이번 어버이날 콘서트는 저희 호스피스에서 기도드리는 Esther 권사님께서 계시는 곳이므로, 더욱 의미가 새롭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 좋은 카네이션을 모든 환우분들에게 달아드리고, 동산교회 예선교회에서 Esther 권사님과 함께 찬양을 드릴 때 모두가 은혜로 기득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어머님의 은혜"를 부를 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참여하신 환우분들은 복사자들의 손을 잡고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감사의 표현을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콘서트였다.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2017.4.25~27 까지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에서 60여명의 참석자(호주에서 참석자 4명)와 함께 수료식을 가졌다.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후기

여호와 이례!!

부활주일을 지나고 4월 18일 한국으로 자원 봉사자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새벽에 집을 나섰다.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호주에서는 4분이 참석하는데 다른 분들은 먼저 도착하셨다. 특별히 멜번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지회를 설립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이순희 전도사님의 각오는 대단하시다.

한국은 꽃피는 봄이라 산과 길가에 핀 진달래와 철쭉, 그리고 쌍벚꽃이 산 언저리에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비록 미세먼지로 인하여 목이 아파 가끔 기침을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은 아픔을 삼켜버린다. 미리 호주로 가져갈 홍보책자와 배너들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 인쇄 골목을 누비고 다녔지만 예전에 한곳에 모여있던 인쇄골목은 찾기 힘들고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시스템이 바꿔져서 옛날의 정취를 찾을 수 없다.

4월 23일 대구동산병원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작년에 뵙고 또 뵙는다고 인사를 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환우 팀장이라고 소개하였다. 환우들과 보호자들의 힘든 모습을 상상하고 설교에 임하였으나,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모두 밝은 얼굴에 미소까지 띄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천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다.

4월 24일 저녁5시 반경에 동산병원에 도착하여 숙소를 먼저 체크를 하였다. 출입구를 지키고 계신 경비원들의 친절한 인사와 아담하게 마련된 Guest House는 사뭇 기독교의 정취를 맛보게 한다. 오후 6시에 호주에서 오신 교육연수생들과 동산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는 동산병원 맞은편에 있는 서문시장에 야시장을 개장한다고 하여 방문하여 한국의 정취를 맑으며 거니는데, 처음 대구를 방문하신 분은 연일 카메라를 누르고 계신다. 젊은이들이 야시장 거리를 가득 메우고, 흘러간 옛 가요들이 Rock 음악과 함께하는 울려 퍼지는, 그야말로 옛날과 현대의 진 풍경을 만들고 있다. 숙소에 돌아와 대구의 딸기와 배를 후식으로 먹으며 한국 TV news를 보면서 한국 대통령 선거토론회를 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새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 드렸다.

4월 25일 오전9시부터 시작되는 연수교육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진지하다 못해 엄숙한 분위기였다. 오전예배를 필두로 순서를 맡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오후에 호주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 및 강의 시간이 주어져서 슬라이드를 보여 주고 호주의 호스피스 실태를 소개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호주에서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에 한번 참석하였으면 …" "나도 호주의 너싱 홈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콘서트에 참석하여 좋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 그러면서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동시대에 특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살든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란 사실이다.

편집실 _ 시드니호스피스

오후에 강의를 마치고 우리들은 뒷동산에 마련된 동산의료원을 세우신 선교사들의 묘지를 방문하였다. 이국 땅에 와서 젊음과 열정을 복음을 위하여 바쳤던 숭고한 이름들이 나란히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고귀한 순교 앞에 모두가 숙연해 졌다. 특별히 마포삼열 [Samuel Austin Moffet, 1864 ~ 1939] 목사님의 셋째 아들이시고, 오늘날 동산병원으로 발전시키신 마포화열 (Howard F. Moffett, 1917~2013)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 조용히 머리가 숙여진다.

어느 듯 교육의 마지막 날, 입관체험과 유서읽기 시간이 되었다. 유서 읽기 시간에 모두가 마음에 찡하는 뭔가를 느끼게 하였고, 간혹 흐느끼는 분들도 있었다.

여기에 한 분의 유서를 소개한다.

ooo

아내에게: 여보, 나와 살아 준 지난 41년을 돌아 볼 때 잘한 것 보단 잘 못한 것이 더 많음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내게 베푼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에 대해 감사해요. 남아 있는 내 여정 속에서 못다한 사랑을 당신을 위해 바치고자 하지만, 너무나 부족할 것 같소. 내 삶이 끝난 후에도 당신을 사랑하며 저 세상으로 가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

딸에게: 아비의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내 딸에게 몇 자 남긴다. 내가 너희를 기를 때 너무 고생만시키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너는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너무 사랑한 내 딸이다. 너의 삶 속에서 남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더 차분히 사리를 판단하는 자세를 갖고 결혼했고, 얘기를 낳았어도 가정, 자식, 남편뿐 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후회 없이 열심히 살기 원한다. 살아 있을 때 너희 남편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거라. 아빠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없고 지난했던 내 과거 속에서도 '아빠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다. 내 딸아, 가장 사랑스러운 내 딸, 사랑했다. 네가 해 준 임플란트 치아 잘 지니고 떠날께, 안녕.

아들에게: 아들아, 너를 생각할 때 미안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억센 이민 생활 속에서 너의 성장기(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관심을 가지지 못해 미안하다. 마음 같아서는 간절했지만, 한 것이라곤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한 것뿐이다. 너는 나의 분신이고 우리 집안의 종손임을 잊지 말고 좋은 배필 만나서 아빠의 잘된 면이 하나라도 있다면 맑고, 그것을 거울 삼아 네 인생에 접목시키거라. 크고 담대하고 착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되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속에 최선을 대해 보는 인생을 만들어 보거라. 사랑한다 내 아들, 안녕.

새로운 다짐: 첫째, 지금부터 잘 죽기 위한 연습을 한다. 둘째, 우선 여행을 통해 내 삶의 재발견을 할 계획이다. 셋째, 아내와 가족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주고 간다. 넷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하나님과 사회봉사를 위해 바친다.

유서를 통하여 보듯이 호스피스 봉사역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호스피스 봉사역은 이미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살핌으로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자신의 죽음을 건강할 때 준비해 나가는 호스피스 봉사자의 마음 자세는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일 것이다. 죽음 앞에 후회 없는 삶, 바로 호스피스 봉사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이다.

시드니호스피스(SICA)/호주호스피스협회(ACC)

대표 김장대 목사 (www.sydneyhospice.com.au)(australianhospice@gmail.com)



위) 제10차 호스피스 콘서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호스피스 봉사자 김경옥(Kyungoak Kim))

아래) Esther 권사님과 함께 찬양드리는 동산교회 교우들 (2017.5.8.)

Second annual volunteer training session report

Jehovahjireh!

I left home early in the morning at the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to attend the volunteer training of Korea on April 18. In Australia, a second quarter volunteer training session in Australia was attended by four other people, while others arrived first. Special thanks for Lee Sung Hee who has given her prayers to help prepare and establish the Australian Hospice Society (ACC) in Melbourne.

As the flowers bloom in spring, the cherry blossoms are showing their off beauty on the mountain. Even though it is painful to cough sometimes because of the fine dust, the beautiful scenery of nature eases the pain. I been through Seoul to find commercial brochures and banners to bring back into Australia but it was hard to find the publishers because they all work through the internet now days.

On the 23 of April, after preaching in the church serve, someone approached me to greet me and he introduced himself as an advocate for patients in Dong san Hospital in Dae gu city. Whilst I was preaching, I had expected many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to feel down and distressed about the struggles that they are facing, however they thanked me for what I have been doing for them with smiles and countless thanks.

On the 24th of April, I arrived at Dong san Hospital at 5:30pm and checked in for accommodation soon after. The security guards were kind enough to greet me and led me to the guest house which had a very Christian like atmosphere. Around 6pm I had dinner with the other volunteer trainees at the Dong san Hospital. After that, we went to the night market at Seo mun Market opposite from the hospital. As we looked around we enjoyed ourselves and Mr. Min took many photos of our experience. The streets were full of young people playing rock music as the scenery has a blend with the old and contemporary society. I came back to my room to snack on strawberries and pears to watch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debate. I prayed for the new president to save Korea from a potential crisis.

On April 25th, training began from 9:00 am with a solemn mood due to the large number of people attending the event. There was a lecture at first held by doctors, nurses, and other volunteers. In the afternoon, there was a lecture prepared by the Australian Hospice which created a presentation slide overviewing who they are and such. A lot of the attendees here have said that "I would attend the walk along the Australian beaches with the patients affected by cancer" to "I would also like to visit Nursing Homes in Australia and attend a concert with them." It seemed that people who live in Australia seemed to be privileged at this time.

After completing the lecture in the afternoon, we visited the graves of the missionaries who established the Dong san Hospital in the backyard of the Hospital. A noble name was carved on the stone beside the tomb, which brought youth and passion to the gospel. Everyone became solemn before the golden faith. Especially the third son of Pastor Samuel Austin Moffet (1864-1939), his head is bowed quietly in front of a tombstone of Howard F. Moffett (1917-2013) who has developed into a garden hospital today.

On the last day of training, we were asked to read our own wills. During this time, a few other and all felt a disturbing feeling and a few of us have sobbed due to it.

Let me introduce a note of Elder/Mr. Min here.

To my Wife: Honey, I know that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I did not do well when I look back over the past 41 years.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sacrifice and love you gave for me. In my remaining journey, I will try to devote as much love for you as I can, however I think it will be too short. I want to love you even more and continue to do so after my life is over. Honey I love you. Thank you. Bye!



위) 소피아 강사님의 지도로 암 환우와 함께 하는 요가 체조 (Yoga Rhythmic Gymnastics, 2017.5.8.)

아래) 2017년 4월 27일 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좌부터 (민경목, 수간호사, 김장대, 이순희, 이양무)

To my Daughter: I know that your father's life is not long, and I can only leave a few words to my Daughter who loves me. When I raised you, there was a lot of trouble, and I lacked a lot of things as a father but you are my daughter who loved so much more than anyone in this world. I want you to be able to tolerate others in your life, marry a man with good judgement and live a life with no regret for your family, your children, your husband and your neighbors. When you are alive, respect and love your husband. My daughter, my dearest daughter, I love you. I will leave you to yourself now. Bye.

To my Son: My son, whenever I think of you I feel sorry for you to begin with for not giving you a lot of my attention during your junior high school and middle school so I am sorry. I longed for you but, all I did was pray to God for you. Do not forget that you are my alter ego, and you have the better side of your father. Make a life of boldness, goodness and good health, living in this world, seeing the best in faith, love and hope, I love you my son. Goodbye.

New commitment: First, I'll practice from now on to die well. Second, I plan to rediscover my life through travel. Third, I'll give all the love I can give to my wife and family. Fourth, I'll dedicate all my ability to God and community service.

Seen through the wills left behind, the hospice service serves as a turning point in life. Most people make plans for their own lives, but they don't prepare for their own death. So, the fear of death suddenly looming towards accidents or illnesses makes it worse. The hospice service helps to make life more meaningful and rich by caring for those who already face death. This attitude of a hospice worker who prepares himself for his death will be a beautiful life in this world that lives beyond the rest of their life. You should learn to live with your life without regret, and through hospice services. Australian-Korean ACC/SICA Hospice

Representative/Rev. Jang Dae (David) Kim

English Homepage (www.australianhospice.com.au)

Email : australianhospice@gmail.com

History of ACC

- 8/5/2017. 10th Hospice Concert (Cooinda Court,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5/4/2017 ~ 27/4/2017 Second Korea-Australia Hospice Volunteer Training: Kye Myung University, Dong San Hospital Hospice
- 10/4/2017. 9th Hospice Concert (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3/2017. 8th Hospice Concert (Meredith House Nursing Home, Strathfield)
- 20/2/2017. 7th Hospice Concert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 20/1/2017. 6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Estia Nursing Home, Ryde)
- 31/12/2016. 1st Hospice Mother's Award (Prize Winner: Keum GuiLee, JiSoo Jang, Jung Ok Jang)
- 22/12/2016. 5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Shalom Centre)
- 3/12/2016. Year End BBQ Party (Manly Beach)
- 30/11/2016. 4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Summer Hill Nursing Home)
- 15/10/2016. Picnic (Breakheath Frower Festival)
- 28/9/2016. 3th Nursing Home Visit Concert (Baptist Care, DHL Centre)
- 26/9/2016~6/10/2016 First Korea-Australia Volunteer Training First Aid Training (18 Trainees)/ Graduated 13 people among 24 students
- 3/8/2016. NSW Fair Trading Registry (INC1601021)
- Chairperson / Public Officer (Representative): Jang Dae Kim
- Treasurer: Jung Hee Song, Secretary: Soon Ja Sung, Audit: Cheol Ho Cho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돋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증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지 받았으니 거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5.8 제10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Cooin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 (영문홈피)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사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ACC/SICA 공동 수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성탄축하연합예배: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0.6)
•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문화 고문)
•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호주정부 무료 First Aid 자격 교육(18명 자격 취득)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 (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 결의사항: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ABN: 17 110 189 115);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장대 Treasurer(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2차 어버이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차 성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 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를 반기로 할.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시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 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 모지식당, 의제: 김장대 목사 대표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 목사 신임, 96% 찬성)

2015.4.2 제2대 대표로 김장대 목사 선임(Chairperson/Public Officer) (변종무 대표 사임)

2012.10.15 제1차 총회 (의장: 변종무 서기: 김영일 선출)

2011.3.17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명칭변경(ABN 87 157 916 417)

2007.8.4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시작 (1회)

2006.10.3 자원봉사자 정기교육 실시(1회)

2004.7.1 소식지 출간

2004.1.4 한국 샘물호스피스 회 시드니회로 출범(대표 변종무 목사)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경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 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라마 치료 자원봉사자 모집

암환우의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너심홀 헌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대구 동산의료원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 (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 0430 370 191

● 제 11 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Columbia Aged Care, 64 Albert Rd,

Strathfield, NSW

• 일시: 2017년 6월 5일(월요일) 오후 2시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 (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1. 후원계좌명 (Account Name):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389575
NAB	082-451	19-458-1666

2. 후원계좌명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 정성어린 후원금은 호스피스 ACC / SICA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소식지 SICA 4 월 2017 회계 자료					
수입		지출			비고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Junkun Choi	6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Jung Ja Choi	60	MEMBERSHIP FEE	인쇄 홍보비	275	
Soo kyung Uh	10	MEMBERSHIP FEE	차량유지비	402.6	
Jung muk Lim	50	MEMBERSHIP FEE	관리비	110	
Mary Chang	5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168.45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경조비	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행사 및 세미나	63.69	
Elhis Kim	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184.15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회계사.변호사	0	
Jee Haing Lee	40	MEMBERSHIP FEE	보험료	801.15	
Chang Keun Lee	60	MEMBERSHIP FEE	water	0	
Moon Sung Lim	20		First aid	0	
Jung ok Jang	30		Total	2074.39	
Tae Sun Oh	10				
Gyeong Hee Lim	20				
Ok Kyung Kim	20				
Jongse Kim (Paul)	20				
Soon e Jung	50				
In Hee Lee	20				
Harp group	50				
Jeung Bun kang	50				
Young Hee Kim	100				
Jun sofia	100				
Hong Jong Tae	120				
WEEKLY KOREAN LIFE	150				
GNA Support GNA SOLUTIONS PT	100				
Sydney west UBF MS KI JU CHUN	100				
sydneylightandsalt	300				
30/04/2017 수입 Total	1830				

소식지 ACC 회계 자료 (2017년 1월 22일-2017년 5월 22일까지)							
수입				지출			
날짜	내역	금액	비고	날짜	내역	금액	비고
13/02/2017	SICA에서 차용		1415	13/02/2017	speaker system 구입	1415	콘서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5/04/2017 \$457.65+22/05/2017 \$957.35 합계)
3/03/2017	St Philip's E'wd St Phillips	680	Acc west 15 계정				
19/04/2017	Fund	3797.6	Acc west 15 계정				
22/05/2017	수입 Total	4477.6					

건강상식

<땀과 건강>

땀은 대개 스트레스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심한(심장의 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땀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해주고 불순물들을 제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체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이 굳어져서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내려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나는 땀은 좋은 땀입니다. 만약 몸에 불순물이 땀으로 배설이 안되면 피부가 짓무르기도 하고, 뾰드라지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찬밥을 먹어도 땀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땀이 콧잔등에만 나오고, 얼굴에만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어느 부위에 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코에 땀이 많이 나면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고,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위에 열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땀이 나는 시기가 낮에 가만 있을 때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은 땀샘의 조절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땀을 지나치게 흘려서 밥 맛이 없고, 또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부에서 땀샘 조절을 시켜주는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약물을 쓰면 좋게 됩니다. 반대로 밤에 잘 때 자신도 모르게 땀이 나는 경우를 도한(식은땀, 도둑땀)이라고하는데, 일종의 허열 때문에 생기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 몸이 허약하다고 생각해서 열을 내는 음식(마늘, 생강, 파)들을 먹게 되면 오히려 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럴 때는 보리차, 둥글레 차 같은 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또한 땀의 색깔이 황색이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뚱뚱한 사람은 땀을 흘려서 좀 좋아질 수 있지만, 마른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양기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리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 요 활 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돋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돋기도 하지만 할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돋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돋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를 실시함으로 연악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돋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민들의 기부금과 교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6월의 여유있는 삶

제 2차 세계대전 후 한 제대 군인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다룬 "우리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해럴드 러셀은 공수부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잃은 채 장애인이 됩니다. 그는 참혹한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놀랄 게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에게 의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으로 글도 쓰고 타이프도 칩니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 되어 장애인의 모습으로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그는 정성껏 열심을 다해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출연료를 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이용사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것을 사용할 때 잃은 것의 백배의 보상을 받습니다."



- 발행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 17 110 189 115) / SICA(ABN: 87 157 916 417)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 날짜(Date of Issue) : 2017년 5월 26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